



고려대학교병원, VIP 병동 개소

뛰어난 의료진 접근성,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별도 출입구, 찾아가는 입퇴원 서비스 등 철통보안



고려대학교병원 VIP 병동이 문을 열었다. 그 동안은 일부 VIP 병실만 운영했던데 반해 이번에는 한 병동을 VIP 전용으로 리모델링했다.

철통보안, 프라이버시 유지가 최우선

총 13병상, 모두 1인실로 이루어진 VIP 병동은 본관과 연결되어 있지만 별도 건물인 교수 연구동에 위치하고 있다. 출입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입퇴원 원스톱 서비스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치를 잡았다.

뛰어난 의료진 접근성, 조용한 환경

교수 연구동에 위치한 만큼 의료진의 왕래도 신속하고 용이하다. 의료서비스는 일반 병동과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될 수 있다. 출입은 VIP 환자와 보호자의 관련 의료인력과 직원만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 병동에서 한발자국 떨어진 만큼 훨씬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동동선 최소화, 처치-검사도 편안하게

외래 및 검사실과의 인접성도 좋다. 여타 병동 중 영상의학과를 비롯한 각 진료실 및 검사실과 가장 가까운 층에 위치해있다. 당연히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검사 및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내·외과 경력 갖춘 베테랑 간호사

VIP 병동 담당 간호사는 모두 내, 외과 경력을 두루 갖춘 베테랑들이다. 진료과별로 병동이 배정되는 일반병동과 달리,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

환자의 처치 및 케어를 담당했던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배치됐으며, 질환별 병동에 입원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동, 별실 내 특화된 편의시설

병동과 별실 내에 특화된 편의시설들이 설치됐다. 병실마다 크기가 차별화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병실에는 월풀욕조를 물론 대형 3D TV와 식사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간, 보호자 대기실 등이 마련되어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모든 병실에는 보호자가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는 소파 겸 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냉장고, 전자렌지, 세면도구 등은 모든 병실에 구비되어 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

VIP 병동에 입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용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 역시 특별식으로 준비해서 제공한다. VIP 병동에 처음 입원한 환자 역시 파키스탄 인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유창해 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 환자와 가족들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에 매우 만족하고 돌아갔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2일(금) VIP 병동 오픈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승하 원장은 “오랜 숙원 사업인 VIP 병동이 오픈하게됐다”며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VIP병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VIP 병동 규모〉 연면적 : 564㎡ / 병상수 : 특실 3개, 1인병실 10개

이학박사기금기부

12.05.24	김현철	₩ 100,000	12.06.25	임병건	₩ 1,000,000
12.06.04	이명진	₩ 10,000,000	12.09.05	이규호	₩ 11,237,000
12.06.08	권순운	₩ 5,000,000	12.10.05	박순하	₩ 5,000,000
12.06.25	이상헌, 김은영	₩ 100,000,000	12.10.15	박흥찬, 김나미	₩ 100,000,000
12.07.06	최종욱	₩ 5,000,000	12.10.29	의과대학 30회 동기회	₩ 20,000,000
12.07.16	천의영	₩ 10,000,000	12.10.31	박경아	₩ 10,000,000
12.07.30	유세화	₩ 20,000,000	12.11.01	김정숙	₩ 100,000,000
12.05.21	이명주	₩ 3,000,000	12.11.07	의전원 10학번 학부모회	₩ 10,000,000
12.05.10	의과대학 40회 동기회	₩ 1,000,000	12.11.07	의전원 11학번 학부모회	₩ 10,000,000

* 기간 : 2012년 05월 24일~2012년 11월 07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정부기관-학계-의료계, 효과적 재난대응 위한 공동모색

[스페셜리포트 1]

고려대학교병원, 2012년 재난대응 심포지엄 성료 추후 국제심포지엄으로 격상-재난구호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터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이 '2012년 재난대응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날로 예측불가능하고 대규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재해 및 인위재해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정부기관-학계-의료계가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이 주최하고, 응급의학교실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1월 14일(수)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개최됐으며, 고려대의료원 김린 의무부총장, 박승하 안암병원장, 소방방재청 방기성 차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재난대응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재난대응 R&D 활성화 연구와 다학제간 연구'를 주제로 실시된 만큼, 소방방재청,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을 비롯해 응급의학 및 감염내과학 의학전문가와 환경의학연구소, 시스템공학과 교수 및 연구원, 공학자 등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재난 발생 예측가능성과 시뮬레이션, 효과적 대비책 등을 위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앞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가 재난 구호 분야에 학문적인 접근뿐 아니라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가재난기관 및 기업, 다양한 연관분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수준의 조직과 시스템 구축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응급의학과 이성우 과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세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국가 재난 대응체계(좌장/홍부외과학교실 송진원)'에서는 ▲재난위험관리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주대 응급의학과 조준필) ▲국가 재난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서울소방재난본부 동작소방서 이일) 등의 발표를 통해 현재 국가 시스템을 확인·점검했다. 또한, ▲재난대비와 대응을 위한 R&D 방향(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조정국 류용섭) ▲국가 재난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제언 & 토론(고대 그린스쿨대학원 박연수)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 '생물 및 화학 관련 재난(좌장/미생물학교실 송진원)'에서는 ▲국내 생물학적 재난의 실제와 대비 현황(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신변중 전염병에 의한 재난발생 가능성과 예방, 대비, 대응전략(고대 신변중전염병 연구소 손장욱) ▲화학재난, 테러사고 사례 및 재난 가능성 예측 분석(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실 김덕식) ▲국가중독정보센터 현황 및 화학사고 응급대응 정보시스템 소개(고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등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 예측가능성과 분석 및 사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 '피해 예측 및 대비, 대응, 복구 전략 계획(좌장/응급의학교실 홍운식)'에서는 ▲재난대비, 대응 체계 설계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적용(KAIST 산업 및 시

스템공학과 이태식) ▲재난 대비 훈련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표준 재난대응체계 구축(고대 의대 응급의학과 김수진) ▲재난 후 인적 피해 관리: 만성건강영향 모니터링(고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박중태) 등 체계적 피해 관리 및 표준 대응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병원은 적극적으로 재난대비발생을 준비하며 재난구호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부터 ▲건물붕괴로 인한 대량환자 발생 ▲전산장애발생 ▲감염성 호흡기질환 대량환자발생 등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을 가정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2012년에는 일본의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을 거울 삼아 '방사성 폭발 사고로 인한 대량환자 발생'을 가정해 소방방재청 중앙 119 구조단과 함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개최한 심포지엄에 이어 내년부터는 재난대응 심포지엄을 국제적 차원으로 격상시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모범사례를 배우고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승하 고려대학교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 재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재난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할 수 있는 공동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개최했다"며 "자연재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위재해는 최선을 다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린 의무부총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국가재난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범 민간차원에서도 국가재난에 대비하는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재난대응심포지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고려대학교병원이 재난구호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차장 역시 축사를 통해 "재난발생시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의료기관에서 재난대응에 관심을 갖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응을 넘어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대책 마련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러 기관이 협력해 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응급의학과 이성우 과장은 "재난재해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며 "현재 고려대 및 의료원은 재난재해 관련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려대학교 재난대응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정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재난재해 관련 R&D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심근경색 몽골환자, 한국에서 생명건져

[스페셜리포트 2]

심장혈관 심각하게 막혀있어 건강 위태로웠던 환자 건강 되찾아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 “의료낙후 국가 지원 사업 지속할 터”



심장혈관 중 좌전하행동맥이 심각할 정도로 막혀 있어,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몽골인 심장병 환자가 한국 의료진에 의해 생명을 건졌다.

15년 전부터 고혈압과 대시증후군 치료를 받던 몽골 환자 차이질수렌(67세, 남)씨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약 20일전부터 흉통을 호소해 몽골 병원에서 심근경색증 진단받았으나 몽골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심근경색 후 2주 이내는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듯이 받아야 하는 기간이다.

차이질수렌씨는 지난 7월 초, 고려대학교병원 흉통클리닉 임도선 교수팀이 국립 사스틴 병원의 공식 초청을 받아 몽골 최초로 ‘경피적 승모판확장성형술’을 시행한 수술장면이

국영방송을 통해 몽골 전역에 방영된 것을 계기로 임도선 교수를 알게 되어 한국에서 임 교수에 의해 심장시술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사실, 조영술 결과 차이질수렌씨는 스텐트 이식을 통해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여타 심장의 주요혈관들 곳곳에서도 중증 이상의 심각한 동맥경화가 관찰되어 여러 종의 혈관 확장제 및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급박했던 시술과 집중 치료가 진행된 지 열흘정도 지난 지금, 차이질수렌 씨는 정상적인 심장기능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했다.

고대병원 흉통클리닉 임도선 교수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심장병 발병률이 높은 몽골에서는 사실 심근경색에 걸리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며 “열악한 몽골의 의료환경을 감안해 몽골내 심장병환자의 치료와 현지 의사들을 위한 시술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도선 교수는 최근 ‘제1회 고려대의료원-몽골 조인트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현지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심장시술도 전수 했다. 이를 계기로 임도선 교수는 뛰어난 시술 성과와 노하우가 몽골에 널리 알려지며 심장관련 의료진들 사이에서 최고의 심장전문가로 떠올랐다.

임도선 교수는 “차이질수렌씨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심장병과 같이 생사의 촉각을 다투는 질병은 의료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방법도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11월 20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으로 심장병 치료를 위해 출국 한다. 🇲🇲

에코피아 경기도 가평군과 상호 · 교류협약 체결

[스페셜리포트 3]

가평군민 위한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활동 실시할 터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7일(수) 오후 4시,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가평군(군수 이진용)과 상호 교류 ·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승하 원장, 이진용 가평군수를 비롯해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 전광용 가평군 보건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협약 체결식에서는, 향후 가평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적 ·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려대학교병원은 가평군민에게 종합건강검진, 선택진료비 할인을 비롯해 오지마을 무료 의료봉사,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 군민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식에서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원장은 “지하철과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가평군과 고대병원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가까운 곳이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호스피스회, 미술전시회 및 음악회 개최

황호춘 화백, 그림 판매대금 일부 호스피스회 기금 기부
교직원들이 노래하는 음악회, 아름다운 화음으로 감동이끝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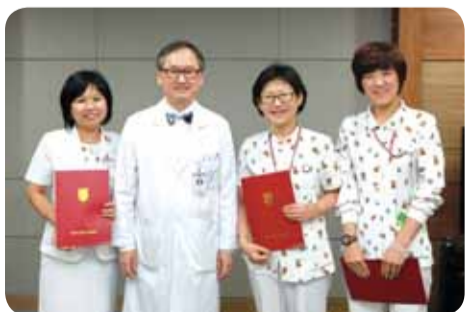
호스피스회(회장 신상원)가 내원객을 위한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일주일간 3층 로비에서 서양화가 황호춘 화백의 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사랑'을 주제로 새, 꽃 등 우리 주변의 익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꿈과 사랑, 염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의 대표작들이 전시되었으며, 그림 판매대금의 일부를 호스피스회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미술 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3층 로비에서 호스피스 회원들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됐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목사 등 병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르며 시작된 이번 작은 음악회는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화음만으로도 내원객들의 이목을 끌며 큰 박수를 받았다.

유방암 5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유방센터, 유방암 환우 홈 커밍데이 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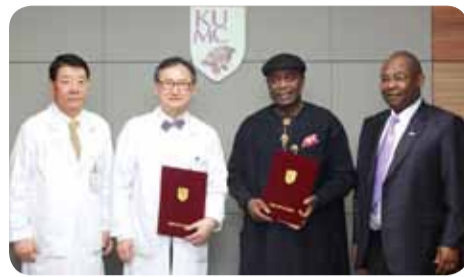
유방센터(센터장 배정원)에서 치료받은 후 5년 이상 생존하며 사실상 유방암이 완치된 환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2012년 유방암 환우 홈 커밍데이' 행사가 실시됐다. 지난 18일(목) 오후 3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 200여명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유방암 치료 후 건강관리(유방내분비외과 배정원 교수) ▲유방수술 후 유방 복원술(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가발연출법과 메이크업(고시환 교수)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됐다. 2부는 스페셜 이벤트 시간으로 ▲유쾌한 리액션 소통법(개그맨 겸 소통테이너 오종철)을 비롯해 환우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2부에서는 유방암 환우들의 5년 이상 생존을 축하하며 배정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고유회(고대 유방암 환우회) 회원들이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익의 촛불을 끄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어서 김연목 유방암 환우의 투병기, 유방암 환우로 구성된 댄스팀의 '하와이 홀라', 고유회 회원들의 합창이 이어졌다.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친절슬로건 공모



고려대학교병원이 친절 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7일(목)부터 10월 12일(금)까지 약 2주간 고려대학교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약 170여개의 슬로건이 공모된 가운데, 최우수상은 여러 교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합니다(고려대학교병원 교직원 일동)'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 우수상에는 '친절은 가슴으로, 진료는 정성으로(내과 이소미 간호사)', 장려상에는 '아름다운 미소와 친절로 소통하는 환자제일 고대병원(52병동 김현옥 주간호사)'와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내과 김용숙 간호사)'로 선정됐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24일(수) 본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하고,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나이지리아 파모 클리닉, 병원진료,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병원과 나이지리아 파모 클리닉 병원(PAMO Clinics & Hospitals)이 진료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22일(월) 나이지리아 파모 클리닉 병원 피터 오딜리(Peter Odili)원장과 주한 나이지리아 데스몬드 아카워(Desmond Akawor)대사가 고려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진료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며, 향후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2 하반기 지역사회 연수교육 실시



고려대학교병원이 '2012년 하반기 지역사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개원의들에게 의료의 최신지견을 전달하고, 진료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연수교육에 이어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3개 지역사회 개원의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11월 15일(목)과 22일(목) 이틀에 걸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개최됐으며, 매년 지역사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의 주제를 정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말라위서 의료연수 위해 방문



고려대학교병원에 아프리카 연수생이 찾아왔다. 지난 11월 6일(화)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말라위 의료 연수생 4명이 고대병원을 찾았다. 앤 포야(Ann Phoya) 말라위 보건부 국장을 비롯해 누르딘 알리드(Noor-deen Alide) 카무즈 중앙병원 병원장, 피터 사이제 제케(Peter Saize Jeki) 산부인과 의사, 단 나마리카(Dan Christopher Namarika) 전 말라위 대통령 주치의(신장내과 의사) 등 4명의 연수생은 고대병원을 찾아 이기형 진료부원장, 최재걸 연구부원장, 김탁 산부인과장, 임도선 순환기내과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를 만나 고대병원과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에 대해 소개받았다.

이들은 이어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심혈관센터의 급성심근경색 심도자술을 비롯해,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종합건강센터, 국제진료센터 등을 돌아보기도 했다.


친절리더,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 실시



고려대학교병원 친절리더가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각 부서별 요청에 부응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즐겁고 효과적인 친절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희망 부서에서 필요한 강의를 신청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공을 부르는 이미지메이킹(권현경) ▲효율적 자기관리 셀프 리더쉽(윤숙녀) ▲친절포인트 우리부서 MOT 찾기(오명옥) ▲화난 고객과 쿨하게 소통하기(문영순) ▲굿바이, 잡 스트레스(김미숙) ▲유머 배려설득의 매직 커뮤니케이션(김현옥) ▲보이지 않는 친절 전화응대(박미선) 등 7개의 서로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양성과정을 수료한 친절리더들이 강의를 함으로써 심도있고, 재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 복지부 장관상 수상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가 지난 10월 11일(목) 대한상 공회외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2 제3회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기형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진단 및 치료지침을 정리하고, 더불어 관련 심포지엄과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 운영하는 등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기형 교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비만위원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대한비만학회에서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비만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아비만의 위해성 및 치료, 생활 습관 변화 등에 대해 교육, 실습하는 등 소아청소년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바지 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저소득층 소아비만 아동을 위한 "소아청소년 Fun & Run 캠프"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 美 소화기학회 Academy of Educators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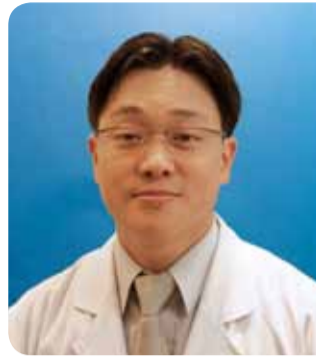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가 미국 소화기내과학회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AGA)내 'Academy of Educators' 로 선임됐다. 진윤태 교수는 현재 미국 소화기내과학회 정회원 및, Fellow로 활동 중에 있으며, 그간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선임되었다. AGA Academy of Educators는 미국소화기학회 정회원 중 임상 및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소화기관련 의학교육 기여도가 큰 경우 선임이 되며, 학회 소화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진윤태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병원 교육수련위원장, 대한소화기학회 편집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장내시경연구회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소화기분과위원회 총무로 병원 및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흉부외과 선경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흉부외과 선경 교수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선경 교수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 제44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에서 이같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3년 11월부터 2년간이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전반을 이끌어나가게 될 예정이다. 선 교수는 현재 KU-KIST 학연교수,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장, HT Forum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공황장애 경험담은 만화, '올리비아의 공황장애 탈출기'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감수 및 해설




프랑스 작가 '올리비아 아지몽' 이 지은 '올리비아의 공황장애 탈출기' 는 작가가 직접 2010년 10월 공황장애가 발병해 1년 여간 치료를 통해 일상의 생활을 되찾기까지 경험담을 만화로 생생하게 설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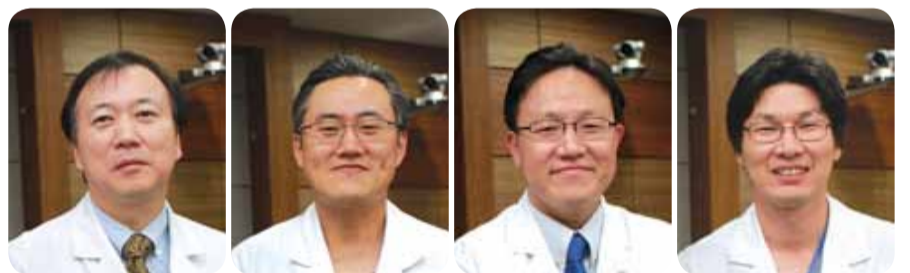
이 책에는 평온한 삶을 살던 한 여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황발작이 나타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만화로 쉽고 친근하게 들려준다. 더불어 책의 초입과 말미에는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와 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가 공황장애에 대해 원인, 증상, 치료, 예후까지 정확하고 쉽게 해설하고 있다. 윤호경 교수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불안장애 전문가로 이 책의 감수를 담당하기도 했다. 


정형외과 이대희 교수, 젊은 연구자상 수상



정형외과 이대희 교수가 '젊은 연구자상' 을 수상했다. 이대희 교수는 지난 10월 19일(금)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정형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기총회' 에서 이 같이 수상하고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젊은 연구자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 40세 이하의 회원 중 학술활동이 뛰어난 연구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상으로, SCI급 논문 편수와 영향력(impact score)을 합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대희 교수는 무릎 관절 중에서도 주로 관절경, 연골판과 연골판 이식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1편의 SCI 논문을 주저자로 발표하여 영향력 점수가 68점으로 지원자 중 가장 높아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수교원 표창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본부회의실에서 우수교원을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2012년 상반기 기준을 이루어졌으며 ▲최다수술건수, 정형외과 이순혁 교수 ▲최다수술시간,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 ▲최다 로봇수술,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 ▲최다 응급수술, 산부인과 송재운 교수 등 4명의 교원에게 전달됐다. 표창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이 전달됐다. 

고려대의료원, 2012 지부단체교섭 조인식



JCI 재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1월 15일(목) 오후 3시 '지부단체교섭 조인식' 을 갖고, 관련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건강검진의 계절...30代 김과장은 위내시경, 40代 박부장은 폐CT [한국경제 10월 25일 게재]

연령 · 성별 · 가족력 따른 검진항목 선택 50대 대장 내시경 · 뇌혈관 MRI 찍어볼만...뼈 약해지는 폐경기 여성은 골밀도 검사



건강검진 추가 항목별 관련 부위 및 질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뇌·뇌혈관·뇌졸중·뇌종양·뇌혈관 질환 폐·허파암·대상포진 간·담낭·담관·신장·폐·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복부·배·신장·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복부·배·신장·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두부·두경부·뇌혈관·뇌종양·뇌혈관 질환 흉부·폐·폐암·흉부질환 복부·간·담낭·담관·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복부·배·신장·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복부·배·신장·췌장·췌관·췌담낭·췌관암	간·간세포암·간염·지혈·공심·공심질환 담낭·담석·담관염 췌장·췌관염·췌관암 신장·신장염·신장질환	위·대장·위암·위장염 대장·대장암

직장인들의 종합건강검진 시기가 돌아왔다. 우리나라 30·40·50대 중장년 직장인들의 암 발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다. 그만큼 중년층의 건강이 좋지 않다. 평소 업무에 매진하는 직장인의 경우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일부 직장의 경우 직원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까지 함께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직원과 배우자가 건강하면 회사의 생산성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 중증질환으로 아픈 동료라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지원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연령·성별·가족력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진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건강에 대한 고민을 털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고려대병원 의료진의 조언을 통해 알아본다.

○ 암·뇌혈관·관상동맥 질환 초점

통상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기본항목 외에 추가 항목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촬영과 CT,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고민하게 된다. 뇌·척추 MRI와 뇌·흉부·요추·경추 CT, 대장·위 내시경, 전립선·유방·상복부·질 초음파 등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부정적이다. 건강검진 자체가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검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과 뇌혈관, 관상동맥질환 등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도 암과 뇌혈관 관련 검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조경환 고려대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장은 “30대에게는 상복부 초음파(간암)와 위 내시경(위암)을 추천한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고 업무 강도가 센 만큼 술자리가 빈번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간암, 위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유방 X선 촬영을, 3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0대부터는 건강검진을 최소 2년마다 받는 것이 좋다. 40대는 30대에 비해 몇 가지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월의 무게만큼 신체 내 각종 노폐물이 가득 쌓인 상태가 된 만큼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폐암 등 폐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저선량(방사선 양이 적음) 폐 CT 촬영도 추천된다. 심근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심장 CT를 한 번쯤 해두는 것도 괜찮다.

50대는 적어도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지만 요즘은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4년에 한 번씩 받도록 권고하는 추세다.

특히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대장암에 걸렸다면 다른 배우자의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대장암이 있었다면 40대에도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50대는 뇌졸중(뇌졸중)도 많아지기 때문에 뇌혈관 MRI를 한 번쯤 해볼 것을 추천한다. 이 시기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 X선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목 주위에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60대는 치매심리검사가 필요하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가 우려되면 뇌 MRI를 찍어보는 것도 좋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뇌졸중, 심근경색, 호흡기질환 등과 관련된 집중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직장인 여성들이 갑상샘암에 걸리는 횟수가 부쩍 늘고 있다. 연평균 25% 이상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1~2년에 한 번은 갑상샘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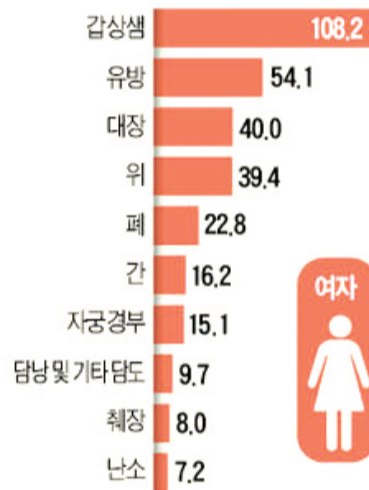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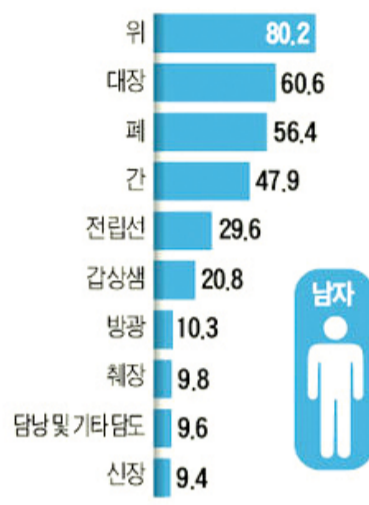
○ 한 곳서 꾸준히 건강검진 받아야

직장인들은 보통 직장에서 정해주는 건강검진기관에서 매년 검사를 받는다. 자영업자나 전업주부 등 일반인의 경우 30세가 넘으면 2~3년에 한 번, 40대에는 격년으로, 50대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다. 만성두통, 무기력, 소화장애, 불면증 등을 느낀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검진을 받는 게 좋다.

질병은 연령 이외에도 가족력, 과거 병력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전문의와 상담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할 때는 건강검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병원은 아니다. 영상판독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있어야 질병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검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지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진단 결과가 정상이라는 것은 단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나는 질병 소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간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증명서는 아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에 정상수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소견이 있어도 꼭 ‘병이 있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검사 소견은 신체 상태, 검사기계의 차이, 검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성별 10대암 발병률 (단위:10만명당명)



연령대별 건강검진 추천 항목

30대	위 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유방X선 촬영, 자궁경부암
40대	폐CT, 심장CT
50대	대장내시경, 뇌혈관MRI, 골밀도 검사, 경동맥 초음파
60대 이상	뇌MRI, 치매심리 검사

이기형 소아성장 전문의가 들려주는 어떻게 해야 키가 크나요?

[건강정보]

숙면 취하고, 저신장 아닌지 관심가지고 체크



수 있을지, 소아성장 전문의 고려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에게 알아봤다.

○ 부모의 키가 가장 중요, 숙면 취할 때 성장호르몬 왕성

자녀 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키, 즉 유전적인 요소이다. 자녀 예상 키의 70% 이상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의 키를 통해 자녀의 예상 키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자는 부모 평균 키에서 6.5cm를 더한 키, 여자는 6.5cm를 뺀 키이다. 하지만 영양을 비롯한 외부 환경적인 요소도 성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키를 키우려는 노력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성장호르몬은 잠들고 1~2시간 뒤 숙면을 할 때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이 키크는데는 필수다. 더불어 단백질, 무기질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영양상태를 보충하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몸속 성장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 저신장이 아닌지, 관심 필요

또래 100명 중 세 번째로 작은 아이까지는 '저신장'으로 본다. 또한, 또래 평균 신장보다

조금이라도 자녀의 키가 더 크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파고드는 키 성장제. 최근 공정위는 이러한 키 성장제와 관련해 거짓·과장광고가 많으며 키 성장제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키 성장제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데도, 키를 키우는 약의 효능을 갖춘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키,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10cm이상 작아도 저신장을 의심한다. 그래서 만 2세부터 사춘기 전까지 매년 성장 속도가 4cm 이하라면 관련 검사를 해봐야한다.


저신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성장호르몬이나 갑상선호르몬이 결핍됐을 때도 나타나고, 터너증후군, 리셀-실버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나, 뇌종양,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일수도 있다. 또한, 유전적인 영향과 같이 질병과 관계없이 저신장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저신장은 이 경우에 속한다.

비만 역시 성조숙증의 한 원인으로 저신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돼야 한다. 하지만 성조숙증으로 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2차 성징이 너무 이른 나이에 나타나고 성장판도 일찍 닫히게 된다. 때문에 당장은 발육이 빠르고 키가 커보일 수 있지만, 최종 신장은 오히려 작을 수 있다.

저신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뼈나이'다. 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뼈 나이를 측정했을 때,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일치하는데도 저신장에 속한다면, 이는 유전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됐을 때도 키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체질적으로 늦게 크는 아이는 뼈나이를 측정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뼈나이가 어린경우가 많다.

저신장 치료는 질병이 원인일 경우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증인 아이에게 성장호르몬 치료를 적용하면 첫 해 8~9cm, 다음해에 7~8cm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

다만, 성장판이 이미 닫히거나 뼈 나이가 너무 진행되어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고, 예상되는 성인 키가 작을 것으로 예측될 때 성장호르몬 치료를 적용한다. 사춘기 신체발달이 끝나면 뼈속 성장판이 닫혀 키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2차 성징 시기 이전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호르몬 치료는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가능하면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는 "최근 과대 광고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키 성장제나 의료가기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키가 작아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성장 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뇨환자, 식이요법 더 엄격해야 치료 효과 있어

[조선일보 11월 14일 조선일보 게재]


'살 찌우는 당뇨약' 인슐린·설폰요소제 식이요법 더 엄격해야 치료 효과 있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설폰요소제 복용을 시작한 당뇨병 환자는 다른 당뇨병 약을 먹는 환자보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두 가지 약물 자체가 체중을 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당뇨병 환자 절반가량이 인슐린이나 설폰요소제를 치료제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슐린과 설폰요소제가 당뇨병 환자의 체중을 늘리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두 약제는 당이 몸에서 덜 빠져나가는 작용을 한다. 당이 몸에 많이 남아 있으면 지방으로 축적돼 살이 찐다. 또 두 약제는 저혈당을 자주 유발한다. 환자는 저혈당이 올 때마다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서 체중이 잘 늘어난다.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니 적당히 지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느슨한 생활습관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영국의 한 당뇨병 연구(UKPADS)에 따르면, 6년간 설폰요소제를 복용했을 때 체중이 5kg 늘고, 3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았을 때 체질량지수(BMI 지수)가 4.8kg/m²는 것으로 나왔다. 관

찰 대상 환자 대부분은 치료 시작 초기에 살이 불었다.

당뇨센터 최동섭 교수는 "약을 써서 최근 2~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당화혈색소가 1% 떨어지면 2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중 증가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당뇨병이 있을 때 체중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며 "인슐린 주사제를 맞거나 설폰요소제를 먹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식이요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글 | 김경원 헬스조선 기자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2년 11월 20일 현재

Table with 10 columns: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문 진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문 진료 과 목. Contains schedul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소화기센터, 내과, 안과, 산부인과, etc.